

롯데몰 군산점 그랜드 오픈

27일... 쇼핑·외식·문화생활 등 복합형태 시설 구현

롯데백화점이 오는 27일, 전북 군산시에 롯데몰 군산점을 그랜드 오픈한다.

군산점은 연면적 8만 9천㎡(약 27,000평), 영업면적은 2만 5천㎡(약 7,500평)의 규모이며, 도심형 아울렛과 롯데시네마 등이 복합된 형태로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이 어우러진 시설을 구현했다.

군산 지역은 한국GM 사건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이다.

이에 롯데몰 군산점은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채용 박람회에는 롯데몰 군산점에 입점하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롯데몰 군산점은 총 400여명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채용하기도 했다.

현재군산점은총근무원 760여명 중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한 지역 주민의 비중이 85%를 차지하며, 이는 기존 아울렛들이 지역 주민 채용하는 비중 보다 20~3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롯데몰 군산점은 채용 박람회를 통해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몰 군산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내에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아울렛이 들어서며, 4층과 5층에는 롯데시네마로,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루어졌다.

군산점에는 여성·남성패션, 잡화, 식품, 생활가전 상품군 등 총 166개 브랜드가 입점해 유니클로,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등 우수 브랜드가 대거 입점하여 정상 대비 30~60% 할인 판매하며, 영풍문고, 모던하우스, 키즈카페 등 다양한 문화 시설도 선보인다.

특히 군산점에는 방문 고객들이 체류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했다.

우선 1층에는 군산 지역 최초로 대형 서점이 입점한다.

군산점에 들어서는 영풍문고는 면적이 약 1,200㎡(약 360평) 규모로, 서점 안에 카페도 운영해 고객들의 편안한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층에는 약 400㎡(약 120평) 규모의 유립식 휴게 공간인 비단밭도 마련했으며, 3층에는 아동 고객들이 장아를 통과, 플라스틱 스케이트 체험 등의 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헬퍼인 1250'이 입점한다.

'헬퍼인 1250'의 입점권은 어린



롯데백화점이 오는 27일, 전북 군산시에 롯데몰 군산점을 그랜드 오픈한다.

이 고객(2시간) 1만 5,000원과 보 호자(1인기준) 3,000원이다. 이외에도 군산점 2층에는 '펀&엔조이(Fun&Enjoy)'를 테마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했으며, 3층에는 홈대 아비코, 홈대 코코로, 고래면역, 키친후가 등 홈대와 군산의 유명 맛집들도 오픈한다.

또한 롯데몰 군산점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센터도 롯데아울렛 최초로 운영한다.

군산지역은 현재 2,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400세대가 신규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다양한 문화 시설 및 강좌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문화센터를 기획했다.

롯데몰 군산점 문화센터에서는 오픈 후 4월 30일(월)까지 '가족 공연 미술쇼', '트니트니 키즈 챔프' 등 아동·유아 고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강좌(강좌 별 일정 상)도 선보인다.

한편 롯데몰 군산점은 4월 26일(목)에 프리 오픈을 진행하며, 4월 27일(금)부터 5월 7일(월)까지 롯데·신한·농협 카드 등으로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롯데상품권 5천원을 증정하며, 또한 금액 대별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한다. /최수호 기자

하림, 지역별미 시리즈 '업그레이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리는 날이 찾아지면서 봄꽃 여행이나 캠핑 같은 야외활동은 고사하고 짧은 외출도 마스크 없이는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매일 집밥만 먹을 수는 없는 일. 하림은 소비자들을 겨냥해 집에서 마지 불나들이를 떠난 것처럼 지역 별미를 즐기고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간편식 제품을 선보였다.

하림은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별미 시리즈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하림 '매실속성 토종닭 순살 찜닭'은 국내산 토종닭을 엄선해 국산 매실농축액에 숙성시킨 제품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하림만의 특색소스에 버무려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인동식 찜닭 특유의 맛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취향에 따라 감자나 양파, 대파 등 각



종 채소와 당면 등을 곁들이면 멀리 나가 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지역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 논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수요조사 근거 맞춤형 지원 협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삼)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이인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와 함께 25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GM발 군산지역 고용위기에 지경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대책은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한국GM 고용위기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난 교육훈련을 집중 연계하기로 하고, 4개 공동훈련센터와 함께 3D프린팅 드론 기계부품개발 등 12개 양성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미개설 과정 중 퇴직자들의 훈련수요가 많은 높은 운송장비

조립, 건설기계운전, 용접과정과 퇴직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직종 훈련을 상반기 내 추가로 개설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미신청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신청 사업장은 행정력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 농업경영자 등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통해 빠짐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수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정영삼 지청장은 "지역 고용위기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한 최저임금 정착은 직계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간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금민농협(조합장 최승운), 대자연병원(병원장 이병관)은 25일 만경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김제지역 농업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장수사진촬영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김중희 국회의원,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이병관 병원장, 최기현 김제시지부장, 최승운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북농협과 의료협약을 체결한 대자연병원의 내과·심장혈관내과·한방과·정형외과·치매검사·우울증검사·영양제 주사 등 25명의 의료진이 지역 농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의료 봉사를 실시하여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들의 피로

회복에 기여했다.

최승운 금민농협 조합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실시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된 것 같다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전국의 농어촌지역을 방문해 의료지원, 장수사진촬영, 김안 및 돋보기 지원, 문화예술공연 등 복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농촌종합복지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행복이음패키지·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5일 전주원에농협(조합장 김우철)본점 인근에서 농가 지원 상품인 '행복이음패키지' 캠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표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가두 캠페인 행사는 전북지역 본부와 전주원에농협 임직원 등 30여 명이 출근하는 시민에게 상품 안내장과 붙절 환상 때 작용할 수 있는 2,000개 황사마스크와 최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에 빠진 김밥 농가를 돕고자 무료로 김밥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많은 고객들이 상품 가입을 통해 도농 상생에 동참하고 어려운 농촌에 힘을 보태시길 바란다."며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이음패키지'는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농협이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아름다운 동행기금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농어가목돈미련저축과 교차 가입한 농업인 고객에 한해 최대 3%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 금융소득 증대 상품이다. /최수호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